
第10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生活環境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8年3月13日(金) 午前10時

場所 生活環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8年度서울特別市立技能大學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1998年度서울特別市立技能大學業務報告의件 ... 1面

(10時 44分 開議)

○委員長 이금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生活環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捧 3打)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기능대학 관계자들은 3월 19일 입학식을 앞두고 개교준비에 매우 바쁘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보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1. 1998年度서울特別市立技能大學業務報告의件

(10時 45分)

○委員長 이금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서울特別市立技能大學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捧 3打)

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委員長님, 그리고 生活環境委員會 여러 위원님, 오늘 102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저희 시립기능대학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업무보고는 우리 학교가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각별하신 지원에 힘입어 기능대학 개교를 앞두고 보고드리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지난 한해는 정말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대학설립에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며 그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하여 설립준비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족한 학교시설 개·보수와 교육장비 추가확보를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주시어 강의실, 실습장 등 1,496평을 확보하였으며 현대화된 교육장비도 150종 389점을 구입·설치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학교시설 교육장비 보강을 위해 특별히 지원해 주신 23억원의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학교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신입생모집 업무도 모두 끝나고 다기능기술자과정 132명, 직업훈련과정 480명 도합 612명의 학생이 입학하게 되었으며 오는 19일에는 여러 위원님과 귀빈을 모신 가운데 개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능대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보고를 위해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靑少年職業專門學校長 鄭洙丙, 庶務課長 韓基完, 敎務課長 金斗星, 學生課長 崔鎭文)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鄭洙丙 校長선생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靑少年職業專門學校長 鄭洙丙; 鄭洙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늘은 기능대학 준비과정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면 될 것이므로 학교장께서는 98년 주요업무추진 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少年職業專門學校長 鄭洙丙; 감사합니다.

그러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報告)

技能大學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正植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正植 委員; 黃正植 委員입니다.

우리 白團長님을 비롯해서 鄭洙丙 校長선생님 연일 고생이 많습시다. 委員長님, 앉아서.....

○委員長 이금라; 교장선생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黃正植 委員; 우리가 기능대학 관계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도 들었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내부에 대한 행정지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능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을 때 지금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학장문제에 있어서도 시청 인사규정에 의해서 현재 공무원에서 1급상당 이상이 되신 분이 학장으로 가는 것이냐, 또 별정직으로서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이런 것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인가 해서 교육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학장을 인선을 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시집행부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立技能大學設置條例로 제3433호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부칙에 團長이 대리역할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론상으로도 법률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는가,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업학교가 그대로 있는데 대학인가가 나서 설립돼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학교시

설의 내부문제라든가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가, 없이 그대로 학생들을 모집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학장이 있고 교학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는 3개 과로해서 서무과가 있고, 교무과가 있고, 학생과가 있는데 교무과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의 전문적인 행정상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기능검정지도, 교육장비 유지관리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술보급육성책 방안으로써 그 학교의 전문적인 전문기술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어떠한 기술적인 행정이라든가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의무와 사명에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수가 이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8.5 대 1 정도 수준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왔는가 그것을 더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다기능기술자 또 직업훈련 야간·주간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 인원체제가 확립이 되었는지, 수준이라든가 이전의 배려문제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했습니다. 신입생모집에 있어서 다기능기술자 과정 4개 학과 120명, 직업훈련 과정에서 7개 공과 520명 이렇게 됐는데 이 인원관계는 더 이상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꼭 묻고 싶은 것은 학장관계, 아까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습시다만 세심한 부칙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론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다음 崔永運 委員님.

○崔永運 委員; 崔永運 委員입니다.

교직원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한 교직원을 확보함으로써 다기능기술자 과정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공개채용으로 자질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토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1학년 수요교원만 우선 채용을 하였는데 39명 중에서 12분만 채용을 하신 것이죠. 채용된 12분 교원에 대해서 지원자는 몇 분이나 됐는가, 또 이미 채용된 12분에 대한 신상과 이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금라; 다음은 金永姬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永姬 委員; 1번의 질문은 崔永運 委員님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본위원은 안 하고 답변은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8.5 대 1로 학교에 자원자가 많았는데 이번에 지원하면서 원서비를 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받았다면 얼마의 수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얼마로 정해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아주 무료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우리가 직제를 보면서 교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교장이라는 명칭은 초·중·고에서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기능은 전문대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장이라는 말을.....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학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

○金永姬 委員; 학장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교장이라고 명칭이 15페이지에 돼 있는 것은 무슨 교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헛갈립니다. 15페이지 조직개편 및 교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교장이라는 명칭이 앞에 있습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교장에서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金永姬 委員;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학교에 입학하는 120명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몇 %로 이번에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의 崔永運 委員과는 공개채용으로 인한 교직원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 중에서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고충상담 지도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취업상담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가 끝나면 취업상담을 통해서 취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충상담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취업상담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번에 IMF시대로 인해서 교육과제가 18페이지 밑에 보면 3개 과정 연 18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자동차, 섬유공예, 컴퓨터 이래서 80명, 60명, 40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교육기간 기초과정해서 2주 2회 6월, 10월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인원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좀더 인원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는지, 180명보다 10배 늘어 1,800명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금라; 다음은 金永俊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永俊 委員; 개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습습니다. 제가 기능대학에 대해서 총론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崔永運 委員님이나 金永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찌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현실을 표현하자면 어떤 환자가 곧 죽어가는데 다행스럽게도 11월 18일 이후에 소위 산소호흡기만 켜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정부가. 그런데 지금 여기 기능대학의 교수직 12명에 대해서, 잠깐만요. 12분 교수직에 대해서 채용기준, 기능대학을 명실공히 전문대학의 동격의 대학으로서 존재가치가 요구되고, 지금 이 지경에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산업인력 보장을 위한, 아니면 훼손된 경제조건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되고 있는데 교수를 임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의 여건을 밝아서 교수를 임용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원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장은 이사관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3급 부이사관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은 누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이리와 봐. 그런데 지금 부이사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기능대학까지 나가는데 기능대학설립추진계획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교장님이 혹시 3급으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중히 안 듣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기가 막혀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 내가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교육이라는 것은 명실공히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만은 최소한도 그리 아니하도록 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문교정책이 전부 썩어버렸거든. 그런데 지금 그 중차대한 이 시점을 감안해 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두에서 표현했듯이 30년, 50년 대한민국 이 환자가 어찌다가 의사 하나 잘 만나서 산소호흡기만 떨어진 상태야. 이것을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능대학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금라; 鄭鎭宇 委員님.

○鄭鎭宇 委員; 鄭鎭宇 委員입니다.

기능대학이 19일에 개교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기능사 양성의 명문대학으로 앞으로 잘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기능기술자 과정하고 직업훈련 과정이. 혼재해 있는데 여기보면 학력에도 차이가 나고 생활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2년제이고 직업훈련 과정은 6개월, 1년 과정 이런 데서 오는 열등감, 위화감 이런 것이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전에도 우리가 한번씩 가서 감사를 할 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학생지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다기능과정, 직업훈련 과정 이렇게 서로 상당수 차이가 나는데 학생지도문제가 먼것번보다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고 이런 대책이 마련돼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善順
위원님.

○鄭善順 委員; 鄭善順 委員입니다.

개교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기능대학에 대한 설치에서 갖추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능대학 설립하는데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그 부분 1차적으로 궁금하고, 서울시가 기능대학이라든지 시립대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원들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대학의 첫 출발에 있어서 교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확보에 있어서 다기능교원채용을 12명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선발기준이라든지 기준에 있어서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염려를 했던 부분 중에 서울시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교육사업에 있어서 가능하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 상당히 어렵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작이 되셨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모델이 돼야 된다 라고 본위원

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기준,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금라; 趙相勳 委員님.

○趙相勳 委員; 趙相勳 委員입니다.

저는 지금 즉답이 가능하다면 간단히 들어도 될까요?

○委員長 이금라; 그렇게 하십시오.

○趙相勳 委員; 이번에 학생모집할 때 다기능기술자 과정하고 직업훈련 과정 두 분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셨는데요. 다기능기술자과정에서 고졸이 124명, 전문대졸 이상 8명, 또 유사한 직업훈련과정은 기능학사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졸자가 377명, 전문대졸 이상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어쨌든 연령의 제한이 없으니까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많이 신청했을텐데 학생선발과 과정에 대한 배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그냥 그 과정에 합격자를 발표한 것인지?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그렇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다기능기술자 과정 같은 경우에 전문대졸이 상당히 많이 몰린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뭐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 과정에 말하자면 전문대 졸업생도 오고 그 이상의 학력자도 왔는데 무슨 특별한 뭐가 있었느냐 그런 말씀

의 요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모집 기준에는 아무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인의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의해서 대학 졸업생도 올 수도 있고 전문대학 졸업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기준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기능기술자 과정에 몇 사람이 응시를 했고 그 중에 몇 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과정도 몇 명이 응시를 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다 하는 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오늘 보고에 선발방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특징 같은 것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왜 해요, 지금 위원회를요. 기능대학이 처음 시작하면서 변화 되는 모습과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많은 자료는 있지만 질문 나오는 내용들도 다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부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죄송합니다.

○委員長 이금라; 朴一男 委員님.

○朴一男 委員;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좀 빠진 것이 아쉬운데 그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IMF시대 이전에 계획할 때는 전액 무료로 하면서 다기능기술자가 훈련과정에 필요하다 이래서 했는데 실제로 IMF시대가 되다보니까 대졸자나 이런 사람들도 오고 이런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서울시 돈으로 교육을 받아서 만약에, IMF시대가 한 3년이나 5년 정도는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3년이나 5년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냐, 말하자면 교육투자효과가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 이런 것은 당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바뀐 것에 대응하는 앞으로의 방법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나드리고 그것이 지금 모집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고민되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이 설명이 없다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준비가 되었으면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검토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이금라;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처음 黃正植 委員님께서는 학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학장의 자격, 또 교육부인가, 그 다음에 학교시설 내부문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12월 5일 서울特別市條例 제3433호에 의해서 서울市立技能大學設置條例를 만들 때 그때 부칙경과조치 제2조3항에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技能大學의 長이 임명될 때까지 技能大學準備團長이 행한 행위 또는 技能大學準備團長

에게 행한 행위는 이를 技能大學長이 행한 행위 또는 技能大學의 長에 대한 행위로 본다 하는 경과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장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장의 자격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기능대학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행정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타 법령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자격증 박탈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만 결격사유가 되어 있고요.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의 학장 추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市長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의 신설시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特別市長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요, 위원은 6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技能大學은 地域經濟局長, 서울시立大 副總長, 그 다음에 서울대 김동진 교수, 고려대 김완순 교수, 이화여대 조형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黃委員님께서서는 교육부 인가가 작년 11월 25일에 났는데 말하자면, 학장 인선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장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내부문제 변동사항을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개·보수장비를 완벽하게 구입됐다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이 물으셨고 또 궁금해 하신 사항이라 해서 겸해서 말씀 올리는데 학장은 내무부에서 인원이 내려올 때 그냥 학장 1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장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1급이다, 2급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나가려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급이다, 1급이다 이런 규정이 없고요. 다만, 봉급체계상 특 3호봉을 받기 때문에 현재봉급체계로는 특 3호봉은 1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金永悛 委員님께서서는 열두 분 교수직에 대한 채용기준과 심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학장은 이사관이라는데 또는 부이사관은 누가 임명하느냐, 그 다음에 질문과정을 정중히 안 듣고 경시를 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질문을 정중히 안 듣고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변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두 분 교수직에 대한 채용기준은 저희가 신문공고를 낼 때 응모자격에다가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여러 가지 제출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교수임용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졸업 및 성적증명서, 경력, 재직증명, 연구실적목록, 석·박사학위 논문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내 대학교수님

들을 비롯해서 열세 분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한 후에 통과되신 분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거기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결과에 따라서 서울市長님의 결재를 득해서 교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께서서는 학장이나 이사관, 부이사관은 누가 임명하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장은 일반공무원의 급으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일반공무원이 학장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급수준으로 보면 특 3호봉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급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학처장, 지방부이사관 또는 별정3급은 서울特別市長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잠깐만요. 사표내고 나갔다가 다시 서울시에 복귀할 수 있어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복귀 못합니다.

○委員長 이금라; 계속 하십시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리고 金永俊 委員長 다시 한 번 사과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崔永運 委員長께서 아까 교직원확보문제하고 열두 분 교원에 대해서 지원자는 몇 명이었고 신상이력은 어땠었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능대학 교수초빙을 98년 1월 24일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서 11명이 응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공채했습니다. 공채 3명은 전자 1명, 패션디자인 1명, 전기 1명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상이력은.....

○崔永運 委員;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지금 다 그 말씀하시려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신상이력은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永姬 委員님께서서는 원서대를 받았느냐? 네, 1,000원씩 받았습시다. 그러면 종합적인 수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시다. 1인당 1,000원씩 원서료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때 수입은 원서대가 317만 4,000원이 총 들어왔습시다. 이것은 서울시 수입으로 잡습시다.

그 다음에 입학금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 9일 우리 金永姬 委員님도 참석해 주신 간담회에서 입학금 문제로 설왕설래가 있었습시다만 저희는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입학금 전액 무료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습시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나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3%, 직업훈련 과정은 20%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과정 인원수가 너무 적다, 확대방안 같은 것이 없느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시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인원이 재교육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시다만 학교형편상 우선 이런 수준으로 금년에 해 보고 최대한으로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시다.

○金永姬 委員; 취업상담 관계를 질문했는데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교장선생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시다.

鄭善順 委員님께서서는 기능대학 설립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이

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 동안에 우리 生活環境委員會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말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金永姬 委員님 질문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간담회 때도 중앙부처에서는 서울시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꼭 관철시켰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든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가 돼야 된다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이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확보 12명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 崔永運 委員님도 말씀계셨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 거주자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합격생 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도 설명하고 자료주시라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IMF시대하고 겹쳐서 시기적으로 그랬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합격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기능기술자 과정 학생선발 기준을 고등학교졸업생의 경우 학교성적 450점, 그 다음에 면접 50점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4 대 1, 최고 전자학과는 20 대 1까지 갔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相勳 委員님 말씀은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一男 委員님도 교육투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비근한 예를 들자면 가령 공고를 졸업하고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졸업하고 다시 이 과정에 입학했을 때 교육투자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심지어는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2년제 기능사양성 과정이고 직업훈련 과정은 1년제 문자 그대로 직업훈련과정인데 여기에 공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들어오면 교육투자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이것을 어떤 특별한 절차나 기준에 의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그냥 전형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한번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鄭鎭宇 委員님 질문하고 아까 우리 金永姬 委員님 질문 답변 못해 드린 것은 저희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靑少年職業專門學校長 鄭洙丙; 金永姬 委員님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상담 내용 가운데 취업지도 상담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지도 상담은 학생들이 수료 약 2개월 전에 원하는 취업처, 취업장소 학생들에 따라서는 유달리 병역특례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등을 모두 기초조사를 먼저하고 최대한 학생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鄭鎭宇 委員님께서 이제 기능대학이 됐으니까 명실공히 기능인 양성의 명문대학으로 육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이 말씀 명심을 할 것입니다. 기능대학이 절대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길로 나가지 않도록, 기능대학은 그야말로 현장에 필요로 하는 다기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설립목표입니다. 절대로 이 기능대학이 4년제 대학이라든지 일반 전문대학 같은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것은 교육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호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능사 양성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관계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다기능기술사 과정은 2년이고 또 전문학사 학위를 받고 거기에 비해서 직업훈련과정 학생들을 그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니 상당히 위화감 또는 열등감 이런 것이 조성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는 지금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다기능기술사 과정에도 고등학교 생활지도담임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꼭 그런 것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생활지도교수를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姬 委員;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기능학교 120명 중에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두번째는 이번에 교수 12분을 채용을 하셨죠.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겠지만 남녀로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다기능기술자 과정 남녀배분은 남자가 103명, 여자가 29명입니다. 12분 교수 가운데 남녀배분은.....

○黃正植 委員; 패션디자인만 있는 것입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패션디자인에 여자분 두 분 교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분이십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면 신청자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남녀비율이 어떻습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田炳萬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수들의 처우는 다른 어떤 유사한 기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교수처우는 타 대학의 교수처우하고, 저희가 이번에 뽑는 교수님들이 전임강사거든요.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대 교수 처우수준하고 똑같습니다.

○田炳萬 委員; 혹시 우리가 시립이나 관공서의 교원들 보면 처우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우리가 좋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진들이 들어와서 훌륭한 강의를 하고 이래야 발전한다고 볼 적에 처우가 혹시나 문제가 되어서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감사합니다.

○委員長 이금라; 답변 다 되신 건가요?

○金永姬 委員; 아까 질문의 답에 제가 확인을 할게요. 아까 다기능의 120명 중에서 남자가103명이라고 그러셨죠?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러시죠?

○金永姬 委員; 여자가 29명이라면 전혀 안 맞습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12사람이 많죠.

○靑少年職業專門學校長 鄭洙丙; 金永姬 委員님 저희 정원이 120명인데 10% 범위 내에서 정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더하니깐 132명이 되는 것입니다.

○金永姬 委員;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 못입니까, 3%인데.

○靑少年職業專門學校長 鄭洙丙; 그 인원은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는 입학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즈음 대학 같은 데 효행, 효자, 효녀들 그런 사람들도 정원의 특별입학의 자격으로 넣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정원 외 특별입학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을 가지고는 못들어오니까.

○委員長 이금라; 그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金永姬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선발 10%인데 거기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직업군인으로서 국방부에 위탁해 우리한테 온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10%가 포함이 됩니다, 특별선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다 포함됩니다. 그것이 특별선발입니다.

○金永姬 委員; 말하자면, 정원 외 10%에 다 들어간 것이죠?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委員長 이금라; 그러면 지금 학장 임명을 아직 못한 것이죠?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委員長 이금라; 그러면 학장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저희 학교로서는 그동안 인사채널에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3월 19일 개교에 여러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학장이 안계셔서 안되겠다 그 안에 꼭 임용이 돼야 되겠다,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채널에서도 이런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하시고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임용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는 아는데 노력은準備團長 책임 아니에요, 학장을 모셔야 할 책임이準備團長한테 결국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어디에다가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러니까 인사채널에다가.

○委員長 이금라; 인사채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내무국입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렇습니다. 인사채널이라고 그러면 위에는 市長님으로부터 관계국상, 관계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鄭善順 委員; 법적 위반은 안되지만 학생을 모집해 놓고 19일 개교인데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네요.

○黃正植 委員;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3433호?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黃正植 委員; 그 부칙에 세심하게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부칙 세부지침에 대해서 말씀은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白團長께서는 방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團長이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團長이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 놓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원칙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린다면 책임을 市長을 대표해서 또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團長님을 보내셨는데 團長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얘기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안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같지 모르겠습니다만 2,3일 이내라도 빨리 조치를 해 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團長으로서 책임을 다 못했다고 하신 말씀 질책을 하신다면 저 그 질책은 감수하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가 모집주체예요? 아까 교수들은 설립준비단에서 모집해서 지금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

면 학장은 예의인가, 또 예의라면 학장은 도대체 어디서 모집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가, 임명이야 市長職務代理가 하겠지만 모집도 안했습니까? 모집주체가 누구예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委員長님, 학장은 모집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기존 대학의 경우는 교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신설의 경우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委員長 이금라; 그것이 신설의 경우라고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렇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자문을 거치셨어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지금 상대가 없으니까 자문을 못거쳤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상대가 뭐예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어느 특정인이 없기 때문에.

○委員長 이금라; 네, 그러면 특정인을 누가 모셔야 돼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것은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인사주무부처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이금라; 어쨌든 내무국에서 후보를 발굴해서, 무슨 위원회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요.

○委員長 이금라; 그것이 市가 갖고 있는 위원회예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렇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그것이 市에 속

해 있는 위원회입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렇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그러면 내무국 소관 위원회예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내무국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능대학장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政策企劃官 대신 地域經濟局長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있다고요.

○金永姬 委員; 위원장은 누구예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鄭善順 委員; 건의를 해서 시장단이라든지, 내무국이라든지 이 부분을 건의를 빨리 하라고 하는 부분도 사람을 추천을 한다든지 이래서 대안있게 얘기를 해야지 대안이 없이 그냥 무한정하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추천만 해서 되겠어요. 그 근거에 있어서 자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안되는 이유를 내무국이라든지 시장단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團長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委員長님, 그리고 鄭善順 委員님, 오늘 生活環境委員會에서 근심 걱정해 주신 이 사항을 제가 빠르면 오늘 중으로 다시 인사채널에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委員長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빠르면 오늘 중에 그렇지 않으면 금명간에 제가 꼭 건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黃正植 委員님.

○黃正植 委員; 白團長님, 제가 제일 스타트로 해서 질의를 한 사항 아십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黃正植 委員; 제가 좀 잠깐 바빠서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재론이 됩니까? 설명을 충실히 해달라고 나는 믿고 조례의 부칙 세부지침관계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확장문제를 재론하게끔 만든 이유가 됩니까? 설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죄송합니다.

○黃正植 委員;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물론 지금 현재 학장이 없는 가운데서 학생을 모집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조례 제3433호 부칙이 있다면서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黃正植 委員; 그것을 대표해서 부칙 세부지침이 행사권을 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되풀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세부지침이 무엇이고 1항은 무엇이고, 2항은 무엇이고, 3항은 무엇이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일 모레라도 빨리 학장은 보내야 할 것 아십니까? 그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내가 물었잖아요,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그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까, 이해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黃委員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시다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아니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기능대학 설립이 학장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한 법적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돼요. 그런데 현재 일단 19일 입학식을 앞두고도 학장인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될 조짐도 없어 보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네.

○委員長 이금라;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규칙상 학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보면 학장의 자격은 특별한 자격은 없습시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기능대학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행정경력이 있는 자여야 함 한다고.....

○委員長 이금라;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 질문은 지금 市立技能大學設置條例 제6조에 기능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데에 학장이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아닙니다, 해당이 됩니다.

○委員長 이금라; 규칙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그런데 왜 규칙이라고 안하고 다른 것을 들

이대세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규칙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뭐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행정경력이 있어야 한다.

○委員長 이금라; 행정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데에 지금 그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못 골랐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니,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 것이 기능대학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한 1년 됐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1년 하는 동안에 당연히 중요한 것이 학장인데 또 교수도 중요하고, 그런데 규칙을 다 정해 놓고 인선에 안 들어가서 그날 120명 학생에다가 이제는 부칙3조에 의하면 靑少年職業專門學校設置條例는 폐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대한 대표로 나서느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잘 알겠습니다. 자꾸 되풀이 돼서.....

○委員長 이금라; 그러니까 되풀이하는 말씀 마시고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풀이 안 하셔도 돼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런데 학장 선임문제는 저희가.....

○委員長 이금라; 그러니까 團長님 소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소관이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대학의 경우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市長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인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문도 못거치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해결할 문제는 자꾸 답변 되풀이.....

○田炳萬 委員; 委員長님,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우리 團長님 얘기를 들어보면 학장 임명은 市長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市長이 하는 것인데 지금 團長의 입장에서 누차 건의를 해도 지금 市長이나 아니면 內務局長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장에 대한 분명한 지침도 없고, 또 사람도 천거를 안해 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건의문으로 하든지 해서 市長에게 빨리 학장이 없이 출범하는 기능대학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빨리 임명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하나 내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이금라; 이 사안이 건의할 사안이 아니라 문책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경위를 충분히 들어보고자 함이고요. 지금 규칙상에 보면 봉급수준도 특 3호봉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시공무원의 경우는 사표를 내고 학장직에 부임해야 하며 다시 서울시에 복귀 못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내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1급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1급이 7명인가 그렇죠? 뻥한 것 아닙니까? 자체내에서 사람이 없으면 빨리 밖에서라도 구해

서 개교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일이지 이것을 議會 이름으로 건의하고 해야 할 사항이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는 감 사시킬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을 設立 準備團長이 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는 한번 도 의논 안하고 지금 19일 개교일을 맞아 놓고는 그렇게 일 처리를 했으면 設立準備團長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문제죠. 본인이 윗선으로 얘기를 하든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은 19일 입학식을 우리 머리 속에 생각해 봅시다. 학장 없는 입학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시장직무대리 나갈 것이고 서울시의회 의장 나가서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일을 그렇게 하 니까 자꾸 행정불신이 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는 이것 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무슨 다른 인 사하고 연관된 부분도 아니에요. 이것이 시 1급 인사하고 물 려있다면 모르되 1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고 싶어도 나 갔다 다시 서울시에 복귀할 수 없다면 대단히 제약을 받게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밖에서 구할 일이 많은데 소홀 히 한 거라고요, 일을.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委員長님께서 공식 비공식으로 한번도 위원회에다 보고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는데요 저희도 이런 사태가 빚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왜 안하셨어요, 움직임이 있었어요? 물망에 오른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다면서 그것을 예측 안 했단 말이 에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당연히 개교 이전까

지는 학장이 임용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委員長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鄭善順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기능대학 설립하는데 규칙에 근거해서 할 수 있으면 아까 규정 내에 1급 7명 중에 교육과 덕망이 만약 없는 부분이라면 행정경험만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으로. 그러면 외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추천해서 단장으로 책임을 했어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냐고 계속 위원님들이 묻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 겸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1급을 갖추고 계신 분들 중에 교육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럼 단장으로서 1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데 외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라도 모시려고 하는 추천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형식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갑갑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鄭委員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단장으로서 왜 오늘날 같은 사태가 있기까지 어느 특정인을 추천도 안하고 이랬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우선 제 부덕의 소치로 우선 사과를 올립니다만 단장으로서 학장 선임에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업무 범위는 아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鄭善順 委員; 해 주십시오는 할 수 없지만 아까 규칙에 근거해서 1급 중에 할 수 있다라면 서울시내에서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7인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타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요, 단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했는데 안 했으면 안된데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하고 개교 며칠 남겨놓고 하십시오 했는데 안 됐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자체를 추진 하나도 안 하셨으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누구를 지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1급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는 내무위원회에다 하든, 시장한테 하든 단장으로서 해야 할 문제죠.

○金永俊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委員長 이금라; 金永俊 委員님.

○金永俊 委員; 우리 委員長님을 위시한 生活環境委員會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백단장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백단장, 부이사관까지 올라가기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백단장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정확히 답변하세요.

1998년 3월 19일 기능대학 개교를 하게 돼. 그 개교일까지 인사문제는 부이사관인 백단장은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전혀 관계할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해, 소명있게 여기에서 목이 달아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단, 건의는 하겠다 건의를 못한 점 죄송하다 건의를 하겠다 하고. 3월 19일까지 서울시장이 학장을 임명을 할 것이야, 만약 못하면 서울시장이 정말로 직무유기지. 그렇게 답변을 못해요?

일례를 들면 개교일 개교에 교장이 있는 것이지, 총장이 있거나 학장이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준비단이야. 그렇게 답변을 명확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전남대 법대 나오셨는데 행정법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단, 여기에서 미숙하게 답변한 것이 백단장 처음에 내가 질의하니까 안 듣고 하는데 대단히 머리가 좋으셔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 답변하니까 좋은 것으로 제가 보여줍니다. 중앙부처에서 오셔서 89년도에 서울시에 전입하셨구만. 그래서 97년도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대단히 그 부분 아주 성공적이고 지금 준비단장으로서의 그야말로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이야. 인사채널이 뭐야, 서울시장, 내무국장, 인사과장, 인사기획계장이 올려서 올리는 것이 기능대학장 아니야. 백단장이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답변하세요. 목이 달아나더라도.

○委員長 이금라;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학장이, 새로 기능대학을 오랜 동안 서울시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 준비를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개교를 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것은 벌써 서울시가 기능대학설립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발하는 마당에 학장 선임하는 문제가 왜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개교일에 못 맞춰서 선임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답을 주셔야죠.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학장 선임 못하고 지금 개교하는 것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한 일을 놓고 왜 선임을 못하는지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죠.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奭; 그래서委員長님,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조금 전에 金永俊 委員長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학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단장의 업무범위 밖입니다.

○委員長 이금라; 업무범위 박인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업무범위 박인걸 인정한다고요. 제가 책임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장이 임명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을 여러번 올릴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의견개진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공문 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공문으로 하셨죠?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공문으로 안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분명히 구두로 했습니다.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金永姬 委員; 본위원회도委員長님 의견하고 같아요. 이것을 위한 노력 공문의 자료를 달라고 하려는 중이에요. 구두로 했다면 구두로 어떻게 했는지 꼭 일지를 자료로 주세요.

○委員長 이금라; 지금이라도 시간이 며칠 있기 때문에 인선이 어느 정도 물망이라도, 확정을 짓기 전에 이 정도 분들이라고 자천타천으로 인선이 이루어져 있어야 무슨 위원회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시장직무대리에게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이것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일 다 제쳐놓고라도 개교일에 맞춰서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못하면 그 사유를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알겠습니다.

○委員長 이금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명심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102회 임시회 제1차 生活環境委員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4일 내일은 지하철 먼지흡입차량에 대하여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를 현장시찰하겠고, 월요일 16일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소관인 여의도 공원화사업 진척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일은 조례안 2건을 심의해야 되는데 개회일시를 오전 10시에서 2시로 변경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6分 散會)

○出席委員

이금라 金鍾來 金永姬 金成洙
金永俊 禹元植 田炳萬 鄭鎭宇
鄭泰宗 崔永運 黃正植 朴一男
鄭善順 趙相勳

○專門委員

林領

○出席公務員

서울市立技能大學設立準備團長 白亨奐
靑少年職業專門學校長 鄭洙丙